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출석 인정

기존 정부대책에서 제외됐던 어린이집 아동들도 다음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PM2.5 36µg/m³, PM10 81µg/m³)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23일부터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시 사전연락하면 인정

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부모가 사전에 결석 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리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에 해당될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질병이나 부상으

나오지 못할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했는데 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 출석인정 특례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들은 미세먼지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관리부처가 달라 지난 5일 교육

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에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대상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중으로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한달 동안 114건 접수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한달 동안 11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총 114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신고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d.go.kr)를 통해 상시 운영중이며 최근에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114건 중 익명신고가 45건(39.5%), 실명신고가 69건(60.5%)을 차지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도 46건(40.3%)에 달했다.

이중 16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1건은 이미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또 28건은 경찰서 신고 등 징계 사건으로 다루어지거나 다루질 예정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사회복지센터 소속 A실장에게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실명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9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돼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지방관서 처리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스



버려졌다 꺼내진 추모 나무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철거가 시작된 19일 오전 경기 안산 세월호참사 분향소 외부 폐기물 수거함에 추모 리본이 달린 나무가 버려졌다가 다시 밖으로 꺼내져 있다.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비상...5년간 576명 사망

4월 822건 · 5월 1157건 사고 많아

경운기>예초기>트랙터 순으로 발생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9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8088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576명, 부상 7137명 등 77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봄철 영농기에는 전체 농기계 사고의 32%(2570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기계 사고는 4월(822건)부터 월평균(674건)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시기인 5월(1157건)에 가장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15년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농기계 사고

는 경운기(49.7%), 예초기(17.2%), 트랙터(11.3%)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노령층 사고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28.9%), 50대(22.5%), 50대 미만(7.2%)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농기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하고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제 때 교체한다. 작업복은 농기계에 밀려들어가 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가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신발은 기압적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가 좋다. 농기계를 운행할 때 좁은 곳, 내

리막, 경사로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하고 보호 난간이 없거나 길 가장자리에 풀이 많은 곳에서는 도로 안쪽을 이용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붙인다. 흙과 같은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사고의 지름길로 매우 위험하니 금주하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는 오전 10~11시, 오후 2~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농기계를 다룰 때는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 전후에는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해양열파로 전 세계 산호초 4분의 3 백화

기후변화로 호주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에 따르면 미국 과학저널 네이처에는 18일(현지시간) 기후변화로 해양열파(marine heat wave)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인 호주 북동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있는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지난 2016년 광범위한 해양열파를 겪었으며, 이는 대규모 산호초들을 백화시키거나 사망시켰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북쪽 약 804km 일대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지역은 일대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다.

이 곳에선 지난 1998년과 2002년에도 산호 백화현상이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지구온난화와 산호초 백화가 다시 시작됐으며, 이 현상은 2017년까지 계속됐다.

연구팀은 해양열파가 전 세계 산호초의 4분의3을 백화시키고, 거의 3분의 1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지난 2016년 해양열파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경합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산호 백화현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산호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사우디서 35년 만에 영화관 문 열어

18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약 35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첫 상영작은 미국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Black Panther)다.

아랍뉴스 CNN머니 등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압둘라 금융지구 영화관에서 '블랙팬서'가 상영됐다. 사우디에서 상업 영화관이 다시 개장하는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사우디에는 1970년대까지 많은 영화관이 있었지만 보수적인 이슬람 정책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차츰 영화 상영이 금지됐다. 영화는 반이슬람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이날 '블랙팬서' 상영은 미국 최대의 영화업체 AMC가 맡았다. 영화관에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귀빈 등 남녀가 섞인 약 500명이 초청됐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영화 상영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일반 상영이 개시될 것이라며 극장에선 성별 분리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혼성, 남성 또는 여성 전용 상영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에서는 공공 장소에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차츰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2017년부터는 일부 음악 공연이나 행사에서 남녀가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작년 11월부터 2030으로 불리는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 적용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리아서 유엔팀 공격 당해 OPCW 조사 지연

화학무기 의심 공격이 발생한 시리아 두마에서 18일(현지시간) 유엔 보안팀이 무장 괴한들로부터 공격 당하면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조사단의 두마 현장 조사가 또 다시 미뤄졌다.

OPCW는 성명을 통해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먼저 두마에 진입해 있던 유엔 안전보안국(UNSS) 요원들이 이날 소규모 총격과 폭발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OPCW는 UN DSS의 방문지 근처에서 총격이 일고 폭발물이 터져 팀이 철수했다고 전했다. 사상자는 없었다. 보안팀은 현재 두마와 근접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복귀한 상태다.

OPCW는 "UN DSS는 시리아 당국, 두마 지역 위원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 군정이 안보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조사단이 두마에 배치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스티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역대 상황의 변동성이 심하다"며 조사단의 두마 접근 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단 진입 전 안보팀이 두마를 재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지난 7일 두마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의 진상 규명을 위해 14일 시리아에 입국했지만 두마 진입이 계속 지연됐다. 조사단은 현지 안전 평가를 맡은 UN DSS의 승인이 있어야 두마에 들어갈 수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